MEDIAART & CULTURE

텔레마틱과 텔레프레즌스





텔레프레즌스 (Telepresence)

- Telecommunication + Presence(실재감, 현존감) -> **원격현전**
- '물리적인 환경의 <mark>경험</mark>' (Gibson, 1979)

- <u>현상체가 현실세계를 떠나 가상세계로 이동함에 따라 가상세계의</u> 사물과 인물에 대해 마치 현실 세계의 사물과 인물에 대해 반응하 는 것과 유사한 심리적, 행동적 반응을 보이는 현상





텔레프레즌스 (Telepresence) 아트

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이용해 연결하여

예술작업을 공유하고 그들로 하여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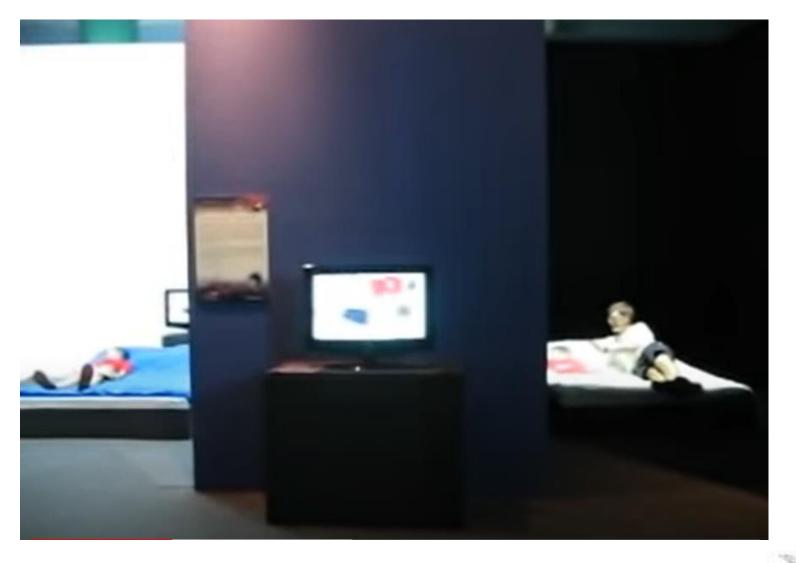
<u>가상현실</u>의 감각적 정보를 기반으로

<u>상호작용</u>하게 함으로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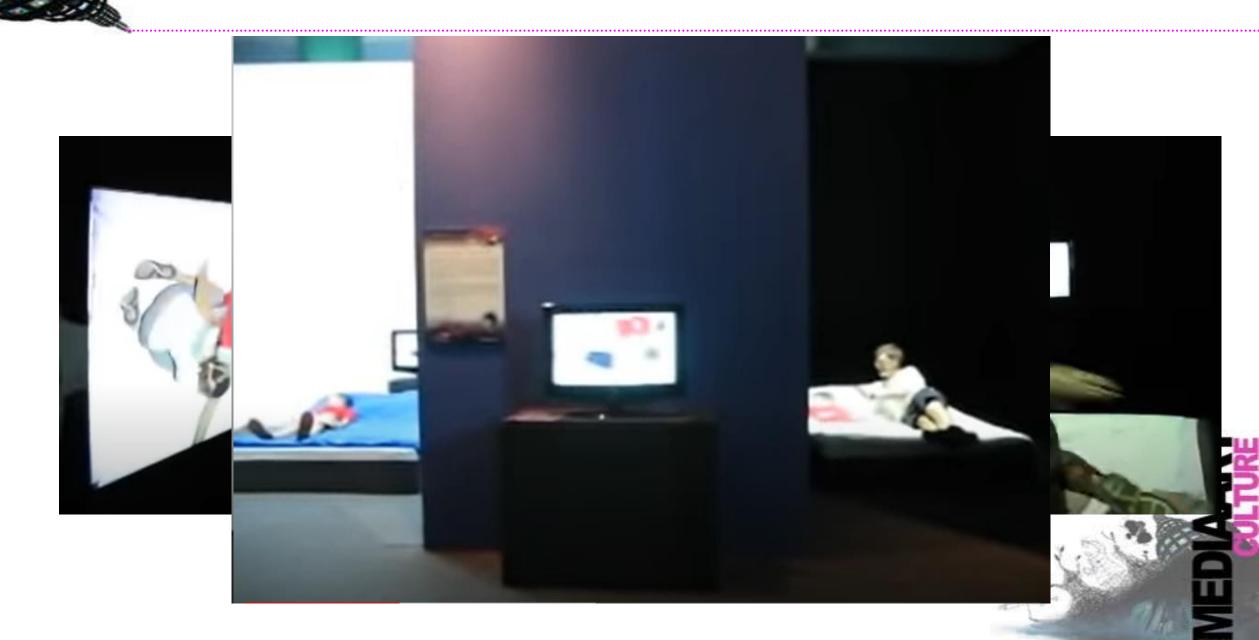


폴 서먼 (Paul Serman)





<Telematic Dreaming> 1992



<Telematic Dreaming> 1992

- 침대가 놓여있는 동떨어진 두 장소를 2MB ISDN선으로 연결시키고, 침대에 누워있는 참가자는 다른 곳에 있지만 동시에 내 옆에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는 타인을 만나게 됨

- 가상적 접촉 -> 리얼한 감각으로 재현





<Table Turned> , <Telematic VIsion>













<There's No Simulation Like Home>, 1993









리얼리티의 이중성

과연 '텔레마틱 공간에 있어서

'자연'과 '리얼리티'의 본질은 무엇인가?





<Body of Water>, 199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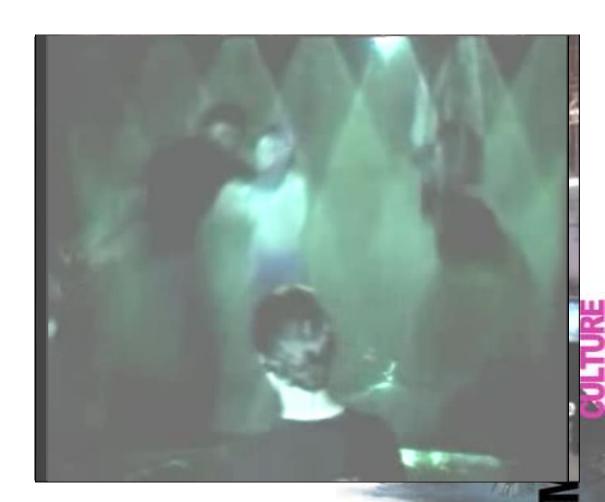
출처: https://youtu.be/4QsZfHGFuQk





<Body of Water>, 1999

- 독일의 폐광촌 바슈카우 허튼(Waschkaue Herten)에 있는 광부들이 사용했던 샤워장, 탈의실, 그리고 뒤스부르그 (Duisburg)의 미술관을 텔레마틱 기술로 연결
- 한쪽 면에는 미술관과 탈의실에 각각 존재하는 관람객들의
 모습이 섞여 투사되고, 다른쪽 면에는 그 샤워장에서 샤워
 를 했던 광부들의 모습이 흑백필름으로 흘러내림
- 과거와 현재, 현존과 부재, 가상과 현실
- 물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서로 순환하고 교차





텔레프레즌스 (Telepresence) 아트

-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인간의 육체는 이동할수 있을까?'
- · 몸과 이미지, 육체를 갖는 나와 이미지를 통한 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?
- → 그 매개가 되는 환경이 사용자에게 완전한 존재감을 느끼게 해줄까?

- 실제의 공간과 컴퓨터를 통해 구성된 가상의 공간이 만나는 제3의 공간을 창조하고

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의

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함





영화 <Her>

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QFd4tUcSJsM



영화 <Her>

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QFd4tUcSJsM